

경제

감정원 "F1부지 감정평가 하겠다"

광주 방문 권진봉 원장 "道-농어촌공사 평가기준 합의따라"

F1(포플러원) 경주장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두차례 거부(광주일보 2월11일·17일)했던 한국감정원이 한국농어촌공사가 다시 요청하면 감정평가를 받아들이기로 해 평가가격이 얼마나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한국감정원 호남권본부 방문한 권진봉(58) 한국감정원장은 "농어촌공사가 F1경주장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요청하면 빠른 시일 내에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감정평가 과정에서 양도·양수자인 농어촌공사와 카보(KAVO) 간 입장차가 너무 커 어느 한쪽의 입장을 반영하기가 힘들어 두차례 반려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하지만 권 원장은 "지난 16일 전남도와 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실무자들이 적용 법률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농어촌공사가 감정평가를 다시 요청하면 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영암군 삼호읍 F1경주장 부지(185만3000㎡·56만평)에 대한 양도·양수문제는 양도·양수자인 농어촌공사와 카보 간 갈등 속에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를 포기하면서 중단된 상태다.

카보 측은 감정평가 적용 법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요구한 반면, 농어촌공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 중 어느 법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개발이익의 포함 여부가 결정돼 평가가격에서도 큰 차이를 보

이게 된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이들 두기관의 눈치를 보다가 감정평가를 포기한 것이다.

권 원장은 "감정평가 결과 물의가 일 것을 뻔히 알면서 무리하게 감정평가하는 것보다는 두 기관이 적용 법률을 합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반려했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는 전남도와 적용 법률을 합의함에 따라 18일째 한국감정원에 감정평가를 다시 의뢰할 방침이다.

권 원장은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고 조사하는 공기업"이라며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분담하는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국가 부동산 정책 및 부동산시장 질서 유지, 부동산 조사·통



계관리, 평가기준 정비 등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초 취임한 권 원장은 경북 문경 출신으로 휘문고와 서울대 농공학과, 한양대 환경대학원을 나왔다. 건설교통부 과장·홍보관리관·도로기획관, 국토해양부 건설수주자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어음부도율 소폭 하락

지난 2월 중 광주·전남 지역 어음부도율이 소폭 하락했다.

17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분석한 '2011 2월 중 광주·전남지역 어음부도 동향'에 따르면 어음부도율(전자결제분 제외, 금액기준)은 0.19%로 전달(0.26%)보다 0.07%p 하락했다.

부도 금액(사업체 기준, 개인 제외)은 53억1000만원으로 전달(85억원)보다 31억9000만원이 감소했다.

부도업체 수는 5개로 전달(4개)보다 1개 증가한 가운데 산업별로는 제조업 1개 증가했고 건설업 등 대부분 산업은 전달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별로 광주(4개)가 1개 증가했고, 전남(1개)은 전달과 동일했다.

신설법인 수는 283개로 전달(338개)보다 55개 감소했으며 부도법인 수에 대한 신설법인 수의 비율은 70.8배로 전달의 112.7배보다 하락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21일 DJ센터 주식투자설명회

한국거래소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06호 회의실에서 변화된 기업의 공시 및 회계환경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응력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광주·전남 일반투자자 대상 IFRS 교육 및 주식투자 설명회'를 연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교육 참가자에게는 '투자자와 함께 읽는 국제회계 기준' 책자를 선착순 무료 제공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쫄쫄쫄' 감말랭이 감기예방에도 좋아요

광주신세계 지하1층 식품관에서는 봄을 맞아 무기를 성분미 풍부하고 비타민과 구연산이 많이 함유돼 감기와 추위예방,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감말랭이를 선보여 주부들의 눈길을 끌고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정착 총력



광주지방국세청 직원들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등 교육을 받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형균)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조기 정착과 발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이를 위해 기존 직원뿐 아니라 지난 2월 인사를 통해 새롭게 업무를 담당할 직원까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발행 실습 위주의 재교육을 실시하고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법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 하고 내년부터 개인 복지부가의무자에게도 의무 발행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형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납세협력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국세청은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제도의 완전 조기 정착과 발행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를 별도 출력해 보관하거나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시 거처별 명세를 기재할 필요가 없고, 일정 세액을 공제해 주는 등 각종 혜택까지 얻을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등에 대한 안내와 상담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www.esero.go.kr)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홍보를 적극 실시해 발행 참여율 95.3%로 납세자의 좋은 호응을 얻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산업진흥협, 경제발전 논의 시동



광주지역 경제발전 네트워크인 광주지역산업진흥협의회(회장 유동국·광주테크노파크 원장)는 17일 오후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올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시를 비롯해 광주상공회의소, 광주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전남본부, 한국광기술원, 광주일보사 등 산·학·연·언·관 29개 기관이 참여해 과학비즈니스 벨트 호남 유치, OLED조명 산업화 기반조성 등 광주지역 경제발전과 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최근 4년 동안 전통시장 매출액은 20% 가까이 감소한 반면 대형마트 매출은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17개 전통시장의 지난해 매출액은 24조원으로 전년 대비 2.8% 줄었다. 29조800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2006년에 비해서는 19.5%나 감소했다.

이에 반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전국 425개 대형마트의 작년 매출액은 33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 늘었다. /연합뉴스

4년간 매출 전통시장 20%↓ 대형마트 30%↑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전국 425개 대형마트의 작년 매출액은 33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 늘었다. /연합뉴스

'첨단자이 2차' 계약률 92% 인기

평균 13.9대 1의 경쟁률로 광주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GS건설의 '첨단자이 2차' 아파트가 계약에서도 성공을 이어갔다.

GS건설은 17일 광주시 북구 첨단산업단지 2단계 인근에 분양 중인 '첨단자이 2차'에 대해 지난

14~16일 사흘간 계약을 받은 결과, 92%의 계약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첨단자이 2차는 지하 2층~지상 24층 8개동 전용면적 84㎡A형 468가구, 84㎡B형 78가구 등 총 546가구 규모다.

내년 8월 입주 예정이며, 인근

첨단자이 1차와 함께 1140가구의 대단지를 형성하게 된다.

이 아파트는 지난 7~9일 청약 접수 결과, 7598명의 신청자가 몰려 평균 13.9대 1, 최고 14.5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전 평형 마감됐다.

GS건설은 첨단자이 2차 미계약분을 17일부터 광주시 서구 신세계 옆 모뎀하우스(062-368-2020)에서 선착순 분양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 1,959.03 (+1.05)
코스닥지수	▼ 487.81 (-4.55)
금리 (국고채 3년)	▲ 3.66% (+0.02)
원·달러 환율	▲ 1,135.30원 (+4.5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엔달러 환율 곤두박질...戰後 최저

일본의 원전 공포가 심화되면서 엔·달러 환율이 2차 세계대전 후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로이터에 따르면 뉴욕시장의 엔·달러 환율은 16일 오후(한국시각 17일 새벽) 전자거래시스템 EBS에서 한때 달러당 76.52엔까지 떨어졌다 이후 소폭 반등했다.

이는 지난 1995년 4월 19일의 전후 최저 환율인 79.75엔을 크게 밑돈 수준이다. 외환시장 관계자들은 원전 공포가 심화되면서 일본의 전문학적 복구 비용을 고려한 엔화 가수요가

엔고를 강하게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 연방준비제도가 최신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양적 완화' 기조를 고수키로 한 것도 지속적인 달러의 상대적 약세를 예고해 엔고를 부채질한 또 다른 요소로 지적했다.

금값은 현물 기준으로 16일 온스당 1396달러로 전달보다 3.40달러 상승했다. 채권시장의 가늠자인 10년 만기 미국채는 16일 가격이 25/32로 형성되면서 가격과 반대로 가는 수익률은 3.21%로 전달보다 0.9%포인트 빠졌다. /연합뉴스

aT 노지채소 안정자금 지원

aT(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지사장 이종경)는 17일 '2011년 노지채소 수급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추·무를 수매해 저장·가공·유통하는 산지유통법인 또는 김치 제조업체이며, 지원 규모는 400억원이다. 용자기간 1년이며 무이자로 담보가 있어야 한다. 또 대출금액의 220% 이상을 수매해야 한다. 문의, aT홈페이지(www.at.or.kr) aT 광주·전남지사(062-940-7011, 7013)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평 일	영업 시간	성 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 - 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토·일 공휴일	영업 시간	성 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 - 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아일랜드리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